

두려움 대신 차분함...어르신들 “일상 회복 설레요”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광주 접종센터 가보니

서구지역 어제 접종대상자 598명...예진표 꼼꼼히 작성하고 접종 90세 할머니 “아프지 않고 기분 좋아”...“곧 마스크 벗을 날 오겠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광주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긴장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염주체육관은 서구지역 어르신들 접종센터로, 이날 오전부터 접종 준비를 위한 관계자들이 북적였다.

이날 접종 대상자들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와 75세 이상 농성 2동 주민 등 598명으로, 대상 어르신들은 예상 접종 시간인 9시 전부터 염주체육관에 도착해 안내에 따라 줄지어 체육관으로 들어섰다. 접종 30분 전부터 와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 10여 명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 주민들은 접종 날짜를 착각하고 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생겼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과 소방 구급대가 센터 인근에 대기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에서 접종이 진행됐다.

광주지역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자의 주인공이 된 양맹순(90) 할머니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종센터에 들어섰다.

양 할머니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는지’,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은 적 있는지’,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꼼꼼히 예진표를 작성해 나갔다.

양 할머니는 이후 의사의 예진을 받았다. 의사는 할머니 체온을 재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묻는 등 백신 접종이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 살폈다. 의사는 “맞고 나면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과 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접종을 앞두고 긴장한 듯한 어르신들을 안심 시키려는 듯 웃으며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양 할머니는 예진을 마친 뒤 접종실로 옮겨 백신을 맞았다. 옷소매를 걷어올리자 양 할머니 얼굴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할머니, 힘 빼고, 따끔할 수 있어요.” 간호사의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접종은 끝났다. 양 할머니 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잠시 얼굴을 찡푸리는 것 외에 독감 접종하듯 편안하게 접종을 마쳤다. 접종을 기다리던 어르신 중 한 명은 긴장한 나머지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종을 맞기도 했다.

양 할머니는 이후 대기실로 옮겼다. 양 할머니는 대기실에서 요양보호사와 15분 간 이야기하며 머물렀다. 접종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15분이 지나 타이머가 울리자 양 할머니는 밖으로 나왔다.

양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왔다. 전혀 아프지 않고 기분도 좋다”며 웃었다.

양 할머니는 “접종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흔쾌히 동의했다”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많이 줘 편하게 이동해 접종을 마쳤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를 비롯, 이날 서구지역 75세 이상 노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일 오전 광주서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일반주민 1호 접종자인 양맹순 할머니가 접종받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회>

인들을 대상으로 한 첫 화이자 백신 접종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접종으로 인한 이상 징후가 나타난 접종자는 없었다는 게 서구 보건 당국 설명이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도 “아무렇지 않다. 하나도

안 아프다”며 웃으며 접종센터를 나섰다. 어르신들과 함께 백신 접종을 마친 품앗이주간보호센터 김순복 팀장은 “이상징후를 보이는 어르신들이 없어 다행”이라며 “곧 마스크 벗고 일상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서구는 오는 7일까지 75세 이상 주민 2696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남구도 다목적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9일까지 주민 2065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부경찰 뒤늦게 ‘차량 스토킹’ 형사처벌 가능 여부 검토

2019년에도 방화 사건 방관 비판 소극적인 대응 여전히 반복 민원인 대응 방식 재교육 필요

차량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돌려보낸 무심경한 서부경찰(광주 일부 4월 1일 6면)과 관련, 경찰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여성에게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여성을 왜 따라오는지) 궁극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소극적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부터 검토가 가능한데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응대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부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광주 경찰의 민원인 대응 방식에 대한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일 여성 운전자를 뒤쫓아 공포감을 야기한 혐의(경범죄처벌법)로 A(39)씨를 입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십km를 쫓아온 남성을 피해 파출소를 찾아 불안감을 호소한 여성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여성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듯한 모양새지만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애초부터 가능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민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말을 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는 등 수사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는 점적극적으로 응대하며 민원인을 안심시켜야 할 경찰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부경찰의 경우 지난 2019년에도 세 차례에 걸

쳐 민원인의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가 실제 방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범죄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B씨는 연인과 헤어지는데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연락해온 C씨에게 돈을 줄테니 헤어지자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화훼단지에서 불을 낼 것을 지시했다.

C씨 이전에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B씨의 방화 교사 사실을 알게된 시민이 서부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C씨는 경찰이 나서지 않자 재차 화훼단지측에 알렸고 범죄 모의 사실을 들은 B씨 여자친구 가족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돌려 보냈다.

결국 방화로 8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런데도 소극적 신고 대응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원인 신고에 대한 서부경찰의 무심경함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구의원들 ‘미안마 응원’ 보여주기식?

민주묘지→전남대→결국 의회서...장소 세차례 바꾸며 챌린지 캠페인 강행

광주시 북구의회의원들이 1일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챌린지’ 캠페인을 하겠다며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챌린지 운동을 강행했다.

북구의원 20명 중 17명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미안마 국민을 응원합니다”, “북구의회는 미안마민주화 투쟁을 지지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사진을 올리며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북구의원들은 애초 이날 미안마 민주화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배경으로 한 챌린지 운동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국립묘지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묘지측은 참배 이후 행사를 하는 건 괜찮지만 참배도 없이 사진만 찍는 행사를 허용할 수 없는 데, 북구의회가 계획했던 예정 시각에는 다른 행사가 잡혀있는 만큼 (사진만 찍는 행사)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1호인 전남대가 제 2의 장소로도 계획했지만 주차 문제 등으로 전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제외됐다. 결국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 일파에서는 굳이 참배도 할 수 없는 날 짜에 행사를 강행하려 한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서구의회가 이미 ‘미안마 운동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동구의회도 이날 ‘미안마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북구도 더 늦기전에 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강행하려했다는 말이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 21 사무처장은 “미안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는 좋지만 5·18묘지 참배도 없이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 행사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